

한국 과학저널리즘의 위기

신문·방송 등 언론사가 재정적 위기에 처할 때마다 맨 먼저 내쫓기는 대열 속에는 어김없이 과학기자들이 포함된다. 결국 적격한 과학전문기자가 없거나 절대로 모자라 우리나라 과학저널리즘은 위기를 맞을 수 밖에 없다. 21세기를 앞두고 과학대중화를 통한 선진국으로의 도약발판이 하루 빨리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玄 源 福
(과학저널리스트)

미 국 패스파인더 화성탐사선의 성공적인 탐색을 비롯하여 선진국의 우주개발활동이 다시 활발해지면서 이에 관한 보도가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 특히 2003년에 지상 4백60km 궤도에서 가동하기 시작하는 국제우주정거장(ISS)의 첫번째 모듈의 발사가 1998년 6월로 다가서면서 요즘 우리나라 대중매체들도 이에 관한 기사를 심심찮게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런 기사에서 ‘국제우주정거장 알파’ 또는 ‘우주정거장 알파호’라는 이름을 접할 때마다

당황하거나 또는 기자의 무지를 나무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번에 우주정거장의 공식명칭이 당초의 ‘국제우주정거장 알파(ISSA)’에서 ‘국제우주정거장(ISS)’으로 바뀌지도 이미 만 3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글쓴이들은 여전히 옛날 이름을 호칭하기 때문이다. 이름 하나 짚을 잘못 붙었다고 해서 뭐 그렇게 대수로운 일인가 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주체의 정확한 이름조차 모를 때 이런 기사의 신빙성은 통틀어 의심을 받게 마련이다. 같은 맥락에서 미국의 「네이처」지라는 기사를 가끔 접할 때마다 서글픈 생각이 든다. 「네이처」는 영국, 그리고 「사이언스」는 미국에서 발간되는 대표적인 과학종합지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상식이다. 이런 잘못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소행성 충돌우려 크게 보도

1998년 3월 11일 우리나라의 대

중매체들도 새로 발견된 소행성 ‘1997 XF 11’이 2028년 10월 26일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국제천문연맹의 발표를 크게 다루었다. 지름 1.6km의 이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한다면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폭 수백만개의 폭발효과로 대규모의 기상이변과 막대한 인명피해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추정이었다. 비록 30년 앞의 미래의 일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독자들로서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다음날인 3월 12일 미 항공우주국(NASA)은 이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없다고 발표하면서 산하 제트추진연구소(JPL)의 계산 결과 이 소행성이 지구와 가장 가까이 접근할 거리는 달과의 거리의 약 2배나 되는 96만km(중전의 발표는 3만9천km)나 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외국신문들은 이번에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뉴스를 일면기사로 대대적으로 보도함으로써 독자들은 안도의 숨을 쉬게 되었으나 국내 신문중에서 이 기사를 제대로 다룬 신문은 거의 없었다. 이것은 국내의 한 유력 일간지의 ‘옵브즈맨 칼럼’의 개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렇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경력많은 과학기자도 해고

한국전쟁 이래의 가장 큰 위기라고 하는 ‘금융대란’을 맞은 요즘 정부는 물론 기업들은 난국(難局)을 뚫고 나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경영난으로 궁지에 몰린 기업들이 먼저 택하는 길은 종업원의 해고다. 지식산업의 기수로 자처하는 언론사

들도 그런 방법을 택하기 시작했고 그중에는 다년간의 경력을 가진 많은 과학전문기자들도 포함되었다. 결국 적격한 과학전문기자가 없거나 절대로 모자라는 우리나라 과학저널리즘은 위기를 맞을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그런데 과학전문기자로서의 제 몫을 하자면 국내외 과학기술의 주요분야에 걸쳐 적어도 10년 정도의 축적된 지식과 경력은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일반기자나 수습기자로 그 자리를 메운다고 해도 그가 제대로 과학보도를 할 수 있을 때까지는 독자들은 상당한 공백기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월이 좋아져서 경제사정이 피면 그때 가서 좋은 과학 배경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면 되지 않겠는가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반드시 겪어야 할 과정을 훌쩍 뛰어 넘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본격적인 과학기술문명시대의 막이 오르는 중요한 세기를 맞아 우리의 과학저널리즘이 후퇴할 수 밖에 없다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인재를 아끼는 사회

우리나라 과학저널리즘의 주요 무대는 신문과 방송이다. 대중과학지는 물론 시사잡지나 경제지까지 과학기사를 많이 다루는 외국의 잡지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과학저널리즘이 설 자리가 매우 한정되어 있다. 그나마 대중매체에서도 더부살이의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언론사가 재정적 위기에 처할 때마다 맨 먼저 내쫓기는 대열 속에는 어김없이 과학기자들이 포함된다. 195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까지 전개된 미·구소련간의 치열한 우주경쟁중 우리나라 언론사들도 앞을 다뤄 과학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과학전문기자를 양성했으나 1973년 제1차 중동유류파동의 여파로 광고가 줄고 재정사정이 어렵게 되자 우선 과학부를 없애거나 다른 부서에 통합시켰고 많은 과학전문기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이것은 과학저널리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선진국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1950년대 말 구소련이 최초의 인공위성 수푸트니크를 발사하는데 성공하자 위기의식에 쫓긴 미국은 우주항공분야의 연구개발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우수인재들이 과학기술분야로 진출하는 것을 돕기 위해 과학대중화사업을 전개했다. 그중에서 록펠러재단과 알프레드 슬론재단의 후원을 받아 뉴욕시 소재의 컬럼비아대학 언론대학원에 신설된 과학전문기자 양성프로그램은 이를테면 미국의 '과학입국'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0년간 배출된 1백여명의 과학전문기자들은 미국 전역의 인쇄매체와 전파매체로 진출하여 국민의 과학이해 증진에 큰 공헌을 해왔던 것이다.

최근 선진국에서는 과학대중화를 국가적 배경으로 추진해야 할 중요한 정책중의 하나로 인식하는 추세가 먼저 나가고 있다. 과학기술이 관련되지 않는 정책은 찾기 어렵게 될 21세기의 과학기술문명시대에는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없이 생존경쟁에서 뒤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주지도가 낮으면 국가나 정부의 시책을 펴나가기 어렵거나 더더서 다른 나라와의 치열한 경쟁에 뒤질 수 밖에 없고 이런 사람들은 직장에서 밀려 날 수 밖에 없다. 특히 지식이 경제를 창출하는 새로운 세기에는 과학기술 관련 전문직종 종사자는 물론 일반시민들도 과학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이해도를 지니지 않는다면 살아 남기 어렵게 된다.

과학기술해설가 적극 양성

그런데 과학의 대중화사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과학기술을 쉽고 재미있게 풀이하여 수용자(독자나 시청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인터프리터'(해설가)들의 몫이다. 그래서 예컨대 일본정부는 과학저널리스트와 과학자 그리고 교육자들을 포함한 과학기술해설가의 양성과 확보를 위해 적극적이며 다양한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 먼저 이들의 활동무대를 넓혀 주고 이런 활동무대를 통해 저명한 해설가들을 자연스럽게 양성한다. 해설가의 활동기회를 늘려주기 위해 TV, 라디오, 신문 및 잡지와 같은 대중매체를 이용하는 기회를 앞장서서 마련해 주는 가 하면 과학기술과 관련된 여러 영상을 제공하기 위해 통신위성을 이용하는 특수 디지털 과학기술채널인 '과학채널'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우리나라에서도 과학대중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정부는 물론 사회전반에 걸쳐 뿌리를 내려 선진국으로의 도약의 터전이 하루 빨리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67